

## 함평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에 통합운영

9월1일부터 관람료 단일화...각종 시설·프로그램도 전면통합

두 공원 잇는 나비열차, 내년 4월 개통...기존 매표소 2개 유지

함평군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함평 자연생태공원으로 통합 운영된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각각의 시설로 운영되던 양서파충류생태공원과 자연생태공원이 오는 9월1일부터 함평자연생태공원으로 통합돼 단일시설로 관리·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했던 통합관람권은 이날부터 전면 폐지되고 공원별로 각각 징수되던 관람료도 단일화

한다.

두 공원을 잇는 나비열차는 내년 4월 개통할 예정이며, 이후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전면 통합이 이뤄진다.

다만, 관람객 편의를 위해 기존 매표소 2개소는 현행 그대로 운영된다.

강복수 함평군 산림공원사업소장은 "공원 활성화 및 개별 매표에 따른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운영을 결정하게 됐다"며 "관리적 차원의

단순통합이 아닌 실질적 통합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일원에 조성된 자연생태공원은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등 7개의 전시시설과 반달가슴곰 관찰원 등 16개의 관람시설, 전망대, 벽천폭포 등 9개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전국 대표 자연생태 체험 학습장이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의 보전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풍란, 한란, 지네발란과 같은 멸종위기종을 개체 증식을 통해 잘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2014년 함평군 신광면 학동로 일원에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8만5000㎡의 부지에 연면적 2673㎡ 규모의 별관까지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서파충류 전문 생태공원이다.

국내외 70여종, 190여 마리의 양서파충류가 전시돼 있으며, 뱀 감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함평=김평춘 기자



## '당신은 농협인입니까?'...찾아가는 상생교육 실시

농협보성군지부, 관내 임직원 160여명 대상



농협보성군지부는 22일 보성농협 대강당에서 관내 농협임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협동상생교육 '당신은 농협인입니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 임직원들의 협동상생 조직문화 구현 및 사업추진

공감대 형성, 농협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정성균 농협연수원 구례교육원장은 "농협 종사자들의 발품이 농촌을 살찌우고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

어서는 안 된다"며 "농협 종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서비스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평소 교류가 잦지 않은 보성관내 농협 임직원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화합의 장이 되기도 했다.

서희수 농협보성군지부장은 "당신은 농협인입니까?"라는 주제로 실시된 교육을 통하여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농협 임직원들의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보성군 농협 임직원들이 더욱 정진하여 농업인이 함께하는 농협,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일궈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인구일 기자

## 광주 공공기관 11월9일 통합필기시험...86명 채용

광주시는 11월9일 산하 공공기관의 2019년도 하반기 직원 채용을 위한 통합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산하기관의 하반기 채용 예정인 원은 11개 기관 86명이다.

기관별로는 △광주시도시공사 5명 △광주도시철도공사 42명 △광주환경공단 20명 △광주테크노파크 2명 △광주신용보증재단 7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명 △광주복지재단 3명 △광주시체육회 1명 △광주시교통

약자이동지원센터 2명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2명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1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9월16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해 개별 접수하면 된다.

## 전남도, 20년 지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가속'

정부추경서 79억 확보...지반 침하 등 1415km 대상

전남도는 2019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와 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등에 국비 79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은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56억원, 함평 해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원, 목포 남악하수처리장 악취 방지사업 3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5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특히 지하수 오염과 지반 침하 등 원인으로 부각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보수를 위해 1415km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목포 32km, 여수 40km, 나주 8km, 보성 40km, 장흥 11km, 진도 1.6km 구간을 우선 조사한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결함이 확인된 곳은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신청해 관로 교체 또는 부분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봉순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노후 하수관로에 의한 지하수 오염과 지반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로의 체계적 관리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오는 2023년까지 모든 노후 하수관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하도록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무안국제공항 389억 들여 편익시설 개선

대합실·환승시설·면세점·주차장 증·개축 공사

전남도가 모두 3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안국제공항의 편익시설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증·개축 공사는 대합실, 환승시설, 면세점, 주차장, 수화물 처리벨트 및 관리동, 장비고 등이 포함되며,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올 들어 7월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9%가 늘어난 56만명에 이른다. 연말까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광주민간공항이 통합되면 3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남도는 국제선 신규 노선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광주·무안공항 통합 및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무안군, 항공사 등과 매월 1회 이상 이용객의 불편 해소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편익시설 개선사업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광주공항과의 통합 이전에 조기에 완료하도록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